

이형훈 제2차관, 권역외상센터 현장 점검 “중증외상 최종치료 역량 강화”

-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현장 방문해 의료현장 점검 및 종사자 격려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6일(수)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원장 조재호) 권역외상센터(센터장 정경원)를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은 봄철 외부활동 증가에 대비하여 권역외상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외상 진료 최일선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16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어 최근 3년 평균 연 1300여 명의 중증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닥터헬기 운항을 개시하여 매년 400명 안팎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경기남부 권역에서 중증외상을 비롯한 중증응급환자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역할)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에게 병원 도착과 함께 전문의 협진, 신속조치 등 최적 치료 제공 / (현황) 16개 시·도에 17개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

** 외상등록체계(KTDB) 통계연보 최종 ISS(손상중증도 점수) 15점 초과인 환자

이형훈 제2차관은 권역외상센터 운영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생명을 살리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부도 중증외상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외상 진료체계의 내실화와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주대학교병원 현장 방문 개요

담당 부서	공공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아람 (044-202-2640)
	재난의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044-202-2638)

- (목적) 봄철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외상환자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권역외상센터 운영 현황 점검 및 의료진 격려
- (일시) '26. 5. 6.(수) 9:00 ~ 10:00
- (장소) 아주대학교병원(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재난의료정책과장
 - (아주대학교병원) 한상욱 의료원장, 조재호 병원장, 임상현 기획조정실장, 강석윤 진료부원장, 윤승현 교육인재개발부원장, 임홍식 행정부원장,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 등
 - (경기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권수 응급의료과장, 정재영 지역외상팀장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 9:00		■ 병원 도착	별관 1층(치과병원입구) 하차
9:00~9:05	(5')	■ 인사말	별관 5층 국제회의실
9:05~9:35	(30')	■ 권역외상센터 운영 현황 브리핑 및 현장 의견 청취	
9:35~9:55	(20')	■ 아주대병원 라운딩 * 권역모자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권역외상센터	본관 3층 연결통로로 이동
9:55~10:00	(5')	■ 마무리	센터 입구